

한국 현대패션에 표현된 자유분방성

변영희·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강사·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The Characteristics of Freewheeling Expressed in Korea Contemporary Fashion

Byun, Young Hee · Chae, Keum Seok⁺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투고일: 2011. 11. 1, 심사(수정)일: 2012. 1. 22, 게재확정일: 2012. 2. 2)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fashion phenomenon according to the concept of the characteristics of freewheeling to explain the de-constructive, eclectic, avant-garde tendencies in Contemporary Fashion. This study is to elicit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through 400 pieces of visual data analysis from 2001S/S to 2011F/W tha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freewheeling, nontechnical experiments do away with the classical form. The oriental ideas include the thoughts of different tastes that break the stereotypes according to the Western values and the pursuit of unconventional beauty. These also insist that everything in the world including human-being, nature and creation is not divided into two equal parts, and even beauty and ugliness originated from one. This study is to find the possibility of interpreting oriental aesthetics with open concepts that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full availability, unlike the Western values that accommodate the relative concept of the pursuit of diversity. Therefore, integrated and systematic approaches of oriental aesthetics that place much value on the coexistence of antithetic concept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ambiguity of complexity and diversity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Key words: freewheeling(자유분방성), humor(해학성), inartificiality(무작위성),
unconventionality(파격성), unification(일원성)

본 논문은 2011학년도 숙명여대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Chae, Keum Seok, e-mail: cks9312@sookmyung.ac.kr

I. 서론

현대 패션은 과거 전통과의 단절에서 수용으로의 변화를 시작으로 서로 다른 개념 및 장르 간의 관계 확장을 통해 새로움(Novelty)을 추구해 가고 있다. 이는 서열적 구분에서 벗어나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의 고정된 사과의 틀을 벗어난 해체주의적 측면과 이항대립의 초월을 뜻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에서의 접근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동양은 과거로부터 정해진 틀을 거부하고 파격을 추구하는 풍류(風流)사상과 자유분방함의 미의식이 종교와 예술 전반에 나타나며, 자연의 만물을 비롯해 미추(美醜)마저도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다는 미(未)분리의식이 존재해왔다. 즉, 경계 짓기를 거부하고, 중심과 주변이 불분명한 탈경계적, 탈중심적 특성이 동양인의 정신관에 내재되어 온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양적 시각에서 현대 패션의 해체적·절충적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동양의 사상과 종교 및 전통예술 전반에 내재된 미의식을 바탕으로 자유분방성을 도출하였다. 이는 과거 절대적 기준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개념을 수용하는 21세기 서양 미학의 흐름이 동양이 과거로부터 추구해온 세계관과 유사하다는 여러 주장을 근거로 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류 열풍 저변에 서양 국가를 비롯, 타 아시아권 국가와 다른 한국만의 차별화된 정신세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미의식 정립과 더불어 한국의 패션 문화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파리와 뉴욕 무대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한국 출신 디자이너 중 자유분방적 특성을 갖는 문영희(Moon Young Hee), 이상봉(Lie Sang Bong), 김지혜(Ji Hye), 두리정(Doo ri)의 작품 40여점을 분석하여 자유분방성의 미적 특성과 비교하고, 현대패션 전반에 나타나는 해체적·절충적·다원적 경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 사상의 근간이 되는 동양의 종교관과 생활관 및 정신사상체계를 통해 자유분방성의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개념과 예술에 나타난 자유분방성을

정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사상체계

1) 발생 배경

(1) 자연 순응적 종교관

동양은 유·불·도 삼교사상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특유의 절제·공존·조화의 문화를 창출해왔으며, 한국은 이러한 고유사상과 무속신앙의 영향으로 자연주의적 현세 중심주의와 조화론적 평등주의에 기초한 사상적 구조를 갖게 되었다. 특히 민족적 순수성과 야수성 및 신비성을 갖는 한국의 무교(巫敎: Shamanism)는 제정일치 사회였던 고대국가의 자연종교로 이후 유·불·도교로 인해 민간신앙에 머무르긴 했으나¹⁾ 현재까지도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의식에 있어 엄격한 규율을 따르는 서양과 달리 무교의 세계는 주객이 미분리되거나 통합된 카오스(Chaos) 상태이자 역동적·즉흥적인 경지에 이르게 되는 혼돈 상태로 성(聖)·속(俗)의 세계를 나누지 않는다.²⁾ 특히 무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풍류도(風流徒)의 덕목에 유교의 충효와 불교의 선행, 도교의 무위자연이 포함되어³⁾ 있음을 볼 때 무교의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어 토착적 샤머니즘과 타사상과의 융합으로 계층을 초월해온 불교(佛敎)는 자연의 소박한 삶을 통해 해탈의 경지를 지향하는데,⁴⁾ 모든 것의 근원이 다르지 않고(諸法不二), 모든 현상과 존재들은 변하며(諸行無常), 서로 의존하는 인연에서 비롯된다(相依緣起)⁵⁾는 상호의존적 관계의 필연성을 부각시킨다. 즉, 색(色)과 공(空)·유와 무·충체와 개별·같은과 다름은 이원적 존재가 아닌 삼태극과 같이 원융(圓融)을 형성하는 무분별한 세계라 함으로써⁶⁾ 일원성 도달을 목표로 주객의 혼입 및 시간·장소의 초월을 주장한다.

유교(儒敎)는 통일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 주체와 객체, 정신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는 연관된 일체로 여긴다.⁷⁾ 따라서, 모든 이치를 상극보

다 상생의 입장에서, 충만과 절제 간의 조화에 비중을 두는 등⁸⁾ 인위를 피하고 자연의 교리에 따르는 술이불작(術而不作)으로 집약된다. 최지원의 현묘지도(玄妙之道)나 퇴계의 이지묘(理之妙), 율곡의 이기묘(理氣之妙)에서도 고신도적 신비성이 가미되어 공(空)·유(有)의 모순을 원용하려는 자연의 묘리를 담고 있다.⁹⁾

도교(道敎)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특정 문화의 통치방식을 비판함으로써 무위자연(無爲自然)사상을 제시한다.¹⁰⁾ 장자는 영원한 도는 끝없이 열려있고(無極), 옛날과 오늘을 가를 수 없으며(無古今), 안도 밖도 없어(無內·無外) 크고 작음을 넘어선다 하였다.¹¹⁾ 즉, 무의 세계인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을 통해 한쪽에 치우친 중심주의나 대립을 거부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함으로써¹²⁾ 사물의 관계를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하는 대대(待對)로 파악하는¹³⁾ 열린 사고를 지향했다.

(2) 풍류적 생활관

풍류(風流)란 멋스럽고 품치가 있는 일이나 그렇게 노는 것으로 한국의 종교 및 예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정신적 자유분방함으로서 노장적 성향이 강한 중국이나 화미(華美)한 장식성을 갖는 일본과 달리 한국의 풍류는 형이상학적 종교성이 강조되고, 풍류도를 고유한 재래 신앙으로 인식하였던 점이 주변국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¹⁴⁾ 특히 풍류인이라 한 사물이나 자연의 영(靈)과 교감하는 일종의 샤먼으로 자연합일이나 물아일체(物我一體)의 도가사상을 반영한다. 풍류에는 무한의 세계인 도(道)안에서 마음이 노닌다는 유희적 측면을 비롯해 자연을 신(神)적 존재이자 도의 구현체로 여겨 인생·자연·

예술을 통합시킨 자연친화적 요소, 현실로부터 벗어나 어디에도 속박 당함이 없는 파격(破格), 탈속(脫俗), 은(隱)의 개념이 함축되어있다. 이에 따른 미적 발현 중 흥(興)은 조선후기 시공간과 사과의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분방한 감정으로 이어지며, 무심(無心)은 초월적 미감으로 사실성이 결여된 미완의 구조로 드러난다. 이상 한국의 종교관과 생활관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모두 자연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신사상 체계

(1) 천인합일(天人合一)

천인합일이란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양의 자연 사상이자 미분리의식이다. 동양의 사유방식을 특징짓는 천인합일은 주객을 분리하지 않고 모든 관계의 이분법을 초월하는 통합적 세계관이자 이 세상 모든 사물이 공(空)이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만들어진다는 일체개공은¹⁵⁾ 공무도허(空無道虛)의 순환성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서 도는 우주이자 순환성(circularity)을 갖는 하나의 연관된 전체를 뜻하므로 미추의 이분법적 사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의 순환성은 보이지 않는 초공간을 전체로 하며, 이는 곧 자연합일이자 기운생동이라 할 수 있다.¹⁶⁾

(2) 무(無) 세계관

실체론을 중시하는 서양의 유(Being) 우주관과 달리 동양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내적 정신을 중시함으로써 무(Nothingness)의 세계관을 지향해 왔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이나 불교의 “色即是空

<표 1> 한국의 종교관과 생활관

종교	무교	불교	유교	도교	
종교관	사상	야수성, 신비성 원초적 카오스	제법불이, 제행무상 상의연기	통일체적 세계관 미분리 의식	자연 순응, 무위자연 무하유지향
	덕목	주객, 성숙 미분리 및 통합	해탈, 일원성 지향 주객 혼입, 시공 초월	상생, 조화, 원용 술이불작	중심주의·대립 거부 대대-열린 사고
생활관	풍류	영과 교감, 유희, 흥 형이상학적 종교성	자연합일, 물아일체 파격, 탈속-자유로움	자연합일, 물아일체 자연친화적 요소	자연합일, 물아일체 유희, 은(隱), 무심

空即是色”과 같이 명징성을 거부하는 것은 실체론적 관점의 서구 시각과는 배치된다.¹⁷⁾ 동양에서 허(虛)는 단순 공간개념이 아닌 실현되기 이전의 가능태(Potentiality)이자 온갖 변형이 잠재되어 있는 무형의 세계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함으로써 결정적 유(有)의 가치체계가 아닌 불확정적·가변적 가치체계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상대적 공간성

상대주의란 총체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물이나 모든 현상의 기반을 관계성에 두고 있음을 뜻하며¹⁸⁾, 관계에 있어 상대적 필연성을 강조한다. 한자나 한글의 경우 몇 가지 기본 글자와 자모음의 조합으로 다양한 글자와 서로 다른 의미가 형성되고¹⁹⁾, 한자는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는 표의문자(表意文字: ideogram)로서 공간성과 전체성이 발달했다. 특히 동양의 사유체계는 정신을 비롯한 기(氣)의 순환을 중시하고, 인간·자연·우주와의 교류 및 조화를 위해 공간을 비워놓는 허·공의 심오한 가치를 추구하는데²⁰⁾ 이는 결국 대상이 지닌 생명감과 기를 중요시함으로써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4) 상생관계

만물의 변화는 음양의 공존에 따른 태극(太極)사상으로 나타나며, 태극은 자연의 생성발전원리를 나타낸 상징체계로서 동양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우주정신과 합일하는 자연 순응적 가치관을 형성해왔다.²¹⁾ 시간과 공간을 동근성(同根性)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음양이 서로 다르지만 일태극의 조화로 보는 것이며, 천지·남녀·선악에도 적용됨으로써 중국에는 피비우스 띠처럼 얽혀있음을 시사한다.²²⁾ 또한 공사상에서도 유무(有無), 물질(物質)·정신(精神), 극소(極小)·극대(極大) 등 상생의 통합적 미의식이

내포되어 있으며²³⁾, 미의 주체와 대상 및 미의 창출과 수용을 유동적 가치로 보았던 점은 서양 전통미학과의 차이로 할 수 있다.²⁴⁾ 이상 한국인의 정신사상 체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예술과 자유분방성

1) 회화 및 공예

사물의 왜곡·과장을 통해 해학과 익살을 담아낸 민화(사진 1)²⁵⁾는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는 한국인의 자유로운 심성을 반영한 것임에²⁶⁾ 반해 흰 여백과 검은 묵의 절제를 통해 내적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수묵화(사진 2)²⁷⁾는 대상보다 여백(Void)을 중시함으로써 사유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²⁸⁾ 막사발(사진 3)²⁹⁾과 분청사기를 비롯, 솟대·신목(神木)과 함께 원시신앙의 조형물로 여겨지는 장승³⁰⁾(사진 4)³¹⁾의 흥취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인위적 기교를 초월해 일탈로 이어지는 무심(無心)의 미학을 구현한 것으로³²⁾ 이러한 파격성, 비균제성, 해학성은 틀에 짜인 격식을 탈피하려는 자유분방성을 의미한다. 이는 18세기 샤프츠베리(Shaftesbury)가 제기한 감각과 직관적 능력의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과도 유사하지만, 완벽주의를 거부하고 미추가 혼재된 자연에의 순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무용 및 연극

자연적 생명력을 갖는 한국춤은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배합하는 신명성과 즉흥성이 녹아있으며, 절제미를 추구했던 궁중무용(사진 5)³³⁾과 달리 민속무용(사진 6)³⁴⁾은 민중의 자유분방함과 역동성을 담아 응어리를 해소하는 춤이다. 접화군생, 화이부동(和而

<표 2> 한국인의 정신 사상체계

	천인합일	무(無) 세계관	상대적 공간성	상생관계
배경	일원적, 통합적 세계관	내면(정신) 중시	관계성 추구	통합적 미의식
	일체개공	명징성 거부	기의 순환 중시	태극사상
내용	미분리 의식	무형의 세계 수용	사유 공간 마련	자연 순응적 가치
	이분법 초월	불확정적, 가변적 가치	내적 측면 중시	음양의 공존



〈사진 1〉 조선 까치호랑이
구라시키민예관
- *한국의 미*, p. 13.



〈사진 2〉 목란도
조선시대
이징(李澄)
- <http://blog.daum.net>



〈사진 3〉 조선시대 막사발
일본 교토 다이도쿠샤
- *조선막사발 천년의 비밀*, p. 13.



〈사진 4〉 장승
- *한국의 아름다움*, p. 24.



〈사진 5〉 궁중 무용
- <http://www.daum.net>



〈사진 6〉 민속 무용
- <http://www.daum.net>



〈사진 7〉 살풀이, 임이조
- <http://www.naver.com>



〈사진 8〉 봉산탈춤
- *봉산탈춤*, p. 123.

不同)적 요소³⁵⁾가 녹아있는 한국춤은 태극선을 증시하는 곡선의 춤으로 멋들어지게 추다 잠시 멈추는 의도적 공백은 여백과 신비성이 녹아있는 예술적 감각의 발현이라 하겠다.³⁶⁾ 한(限)·흥(興)·멋·태(態)와 함께 절제미의 극치를 이룬 살풀이³⁷⁾(사진 7)³⁸⁾와 정중동(靜中動)의 고요함과 역동성을 간직한 승무, 이와 달리 신명난 동중정(動中靜)의 남성춤으로 양반에 대한 비판과 조롱, 풍자를 담은 탈춤(사진 8)³⁹⁾은 골계적인 화소가 혼합되어 있다.⁴⁰⁾ 특히 엄격성을 지향하는 서양과 달리 한국춤은 마당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관객이 연희에 동참하게 하는데⁴¹⁾, 프론코(L.C.Pronko)는 이에 대해 동양 연극은 음악·노래·춤·연기가 총체화되어 생동감 넘치는 현장성을 창출한다고 설명한다.⁴²⁾

3) 건축

한국의 전통가옥은 자연과의 융합, 좌우 불균형, 개방성과 폐쇄성, 다양성과 통일성을 특징으로 하며, 비규격적·비통일적으로 지어진다. 천지자연의 이치와 태극 음양론의 사유에 순응하는 추가집⁴³⁾(사진

9)⁴⁴⁾은 기교의 일탈을 통해 개방성, 비형식성, 파괴성을 가지며, 비대칭 균형을 이룬 마당(사진 10)⁴⁵⁾과 공간의 규모나 기능에 따른 창호 모양(사진 11)⁴⁶⁾은 조형의지를 멀리한 자연사상을 반영한다.⁴⁷⁾ 랑카스터(C.Lancaster)는 동양건축의 전형적인 원리를 형식보다 양괴(量塊)적 관점에서, 개별화보다는 통합화, 장식보다는 단순, 수직성보다는 수평성, 효용성보다는 재료를 그대로 드러내며, 자연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말한다.⁴⁸⁾ 특히 객체의 형태와 놓이는 상황, 자연과의 어울림, 방과 마당의 여백, 낮은 담장에 의해 외부환경을 내부로 수용하는 개방된 자세를 보인다.

4) 복식

한국 복식은 자로 잰 듯한 정확성보다는 여유분을 둔 넉넉한 구조에서 인체와 의복 간의 여백을 추구하며, 기의 흐름 및 자연과의 화합을 위해 비워두는 공간적 제약을 초월한다. 치마의 경우 전개형식으로 움직임에 따른 실루엣의 변화를 보이고, (사진 12)⁴⁹⁾의 저고리는 길이의 변화와 소매 끝동의 유무·넓이를 비롯해 섶, 동정, 깃, 옷고름 등 각 부분의 변화를



〈사진 9〉 초가집
- <http://www.naver.com>



〈사진 10〉 한국 전통가옥
마당, 한국 민속촌
- <http://www.koreanfolk.co.kr>



〈사진 11〉 전통주택 구조
- <http://www.imagekorea.co.kr>



〈사진 12〉 삼회장 저고리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 <http://museum.sookmyung.ac.kr>



〈사진 13〉 미인도,
신윤복
- *한국의 아름다움*, p. 101



〈사진 14〉 까치두루마기
고궁박물관 소장
- <http://www.gogung.go.kr>

통해 다양한 구조미를 지닌다. 주목할 점은 저고리의 단소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마는 점차로 장대해져 상박하후의 대조된 형태미(사진 13)⁵⁰⁾를 연출했다는 점과 치마의 단순한 구조와 전개형 구성은 착용자의 미적 태도가 개입될 여지를 줌으로써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⁵¹⁾ 색채에 있어 소색과 오방색(사진 14)⁵²⁾의 혼용 또한 음양오행의 우주관과 기의 순환성을 반영한 것으로⁵³⁾ 상하 이색조화를 비롯한 옷고름, 결마기, 끝동에 개입된 의외색은 단조로움을 뛰어넘는⁵⁴⁾ 독특한 미의식을 보여준다.

이상 회화·공예, 무용·연극, 건축, 복식 등 한국

전통예술에 내재된 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자유분방적 특징을 도출하여 <표 3>에서 정리하였다.

3. 자유분방성

자유분방이란 관습·격식 및 규범,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이 자유로움을 뜻하는 것⁵⁵⁾으로 규칙이나 결과에 개의치 않는 Freewheeling이나 자연스럽게 행해짐을 뜻하는 Spontaneity⁵⁶⁾로 설명될 수 있다. 자유분방의 미가 출연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통일신라 이전에는 토착신앙이나 북방에서 유입된 무교가 상층 문화에 영향을 미쳐 예술작품이 투박·단순·간결한

<표 3> 한국 전통예술에 내재된 자유분방성

회화·공예	무용·연극	건축	복식
민화, 수묵화 막사발 분청사기, 장승	궁중 무용 민속 무용 살풀이, 탈춤	가옥, 초가집 창호모양 마당, 담장	치마, 저고리, 섶, 동정, 깃, 옷고름, 결마기, 끝동, 소색, 오방색
↓	↓	↓	↓
왜곡, 과장, 해학, 익살, 여백, 무기교, 일탈, 무심	절제, 역동, 공백, 정중동, 동중정, 자유로움	융합, 양면성, 불균형, 무기교, 파격, 여백	여유, 여백, 변화 상박하후, 대조배색, 관계성

형태를 보이고, 통일신라 이후에는 유·불·도가 수용됨에 따라 상층부의 정제된 세련미와 서민층의 소박미가 양극화를 이루게 되며⁵⁷⁾, 이후 조선후기에 기층민들의 소박미가 상층부에 흡수되면서 자유분방미가 발현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기층문화는 규범과 질서를 지향했던 표층문화와 달리 인간의 원초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무교(巫敎)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무질서를 지향하는데, 이러한 종교적 정신사적 배경이 한국 전통예술에 영향을 미쳐 내적으로는 대립, 갈등이 없는 화동(和同)성을 외적으로는 형식을 벗어난 왜형성(歪形性)을 추구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유분방성이란 기층계급이 조선조 후기 신분상승을 이루면서 상층문화와 융합한 결과이자 자연주의와 무교를 바탕으로 인위적인 세계를 좋아하지 않는 한국인의 기질로써 이후 익살, 해학, 과격, 일탈 등의 미감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⁵⁸⁾ 특히 무교는 각 시대마다 표층 종교가 존재하고, 조선조 무교의 탄압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절멸되지 않는 강인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한국미의 기저를 이룬 정신사상이라 할 수 있으며, 서열을 초월해 양 층의 문화가 조화를 이룬 조선 후기 자유분방성이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미의식이라 생각된다.

4. 자유분방성의 유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시대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종교관과 정신관이 꽃으로 비유되는 예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정신 사상체계와 전통 예술에 내재된 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자유분방성의 특징을 유형화하였다.

첫째, 자연, 소박, 무심, 무위자연, 여백, 무기교, 공백 등은 형식 및 의도적인 기교의 최소화 또는 완성의 무관심을 뜻하는 무작위성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외적 형태미보다 내적 정신미에 집중하며, 비움으로써 기의 순환을 중시함을 의미한다.

둘째, 무질서, 탈속, 왜곡, 일탈 등은 정해진 격식이나 틀을 깨는 과격성으로 스스로 더 빈곤해짐으로써 미추가 공존하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는 회귀성을 내포한다.

셋째, 유희, 과장, 익살, 풍자 등은 사실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웃음과 조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결국 현실의 절망을 극복하려는 긍정적 태도이자, 한과 흥의 대조감정을 양립시켜 정신적 해방감을 맛보게 하는 해학성으로 집약된다.

넷째, 미분리, 합일, 대대, 공존, 융합, 양면성 등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음적 요소에 가치를 부여해 양과 음의 구분 초월, 전체성을 모색하는 일원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여기서 일원이란 모든 대상의 근원이 자연임을 뜻하는 것으로 자연의 세계가 질서와 무질서, 음양의 상반개념, 온갖 가능태를 포함하는 근원으로 여겨지는 것을 볼 때 기존 연구의 자연미보다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유분방성의 유형을 무작위성, 과격성, 해학성, 일원성으로 분류하

〈표 4〉 자유분방성의 유형

구분	일반적 개념	형식	세부표현유형	비고	사상체계	
무작위성	- 기교, 형식 최소화: 내적 정신미 추구 - 완성의 무관심: 정신, 기의 순환 중시	여백 무위자연 무기교 미완성	절제 무관심	외적 표현	⇐ ⇐ ⇐ ⇐	무(無)세계관 상대적 관계성
과격성	- 격식, 기존 방식 회피: 무질서 - 질서와 무질서의 공존: 자연으로 회귀	일탈 왜곡	무질서 빈곤			무(無)세계관 천인합일
해학성	- 삶의 긍정적 태도: 절망의 극복 - 대조 감정 양립: 정신적 해방감 자유정신 발현	일상성 위반 이질요소	과장 대조			상생관계 상대적 관계성
일원성	- 음적 요소에 가치 부여: 열린 사고 - 음양의 구분 초월, 상생: 전체성 모색 통합적 접근	천인합일 일체개공 제법불이	음적 개념 양면 가치 공존			내적 의미

고 그 세부유형과 특징을 <표 4>에서 정리하였다.

Ⅲ.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자유분방성

자유분방성은 과거 서양이 이원론적 세계관에 따라 절대미의 척도로 설정해놓은 이항대립의 모순과 이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행하는 해체 과정과 달리 처음부터 주객(主客)을 분리하지 않는 미분리 사상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성을 바탕으로 한다. 즉, 작위적 해체나 제거가 아닌 미추가 혼재된 자연으로의 회귀 및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는 자율시스템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현대패션에 표현된 자유분방성을 무작위성, 파격성, 해학적, 일원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무작위성

무작위는 본질의 추구를 위해 세부적인 것에 뜻을 두지 않는 것으로 주로 자연 그대로의 형태나 색상, 소재를 차용하거나 인위적인 기교·장식을 배제한 반꾸밈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기교에 대한 무관심은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온 동양 정신에 흐르는 무심(無心)과 같은 의미로 디자인에 있어 대칭·균형·비례·조화 등의 의도적 정형성을 탈피함으로써 불완전한 형태를 수용한다.

1) 절제

디자인에 있어 절제란 의도적 기교나 계산을 최소화함으로써 단순미를 지향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은 형태를 포함한다. 형태, 색상, 질감 표현에 있어 장식성을 배제하고 최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1960년대 서양의 미니멀리즘(Minimalism)과도 연관성을 보이지만, 미니멀리즘은 디자인 요소의 절제 속에서도 미적 원리에 따른 기능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동양의 사유체계는 기(氣)의 순환과 정신을 중시하고, 인간·자연·우주와의 교류 및 총체적인 조화를 위해 공간을 비워두는 허(虛)·공

(空)의 심오한 가치를 추구해왔다.⁵⁹⁾ 즉, 동양적 사고에서의 절제는 계획에 따른 최소화가 아닌 무형식·무형태를 통해 인체·의복·공간 간의 상대적 관계를 모색하고, 인간의 본성에 집중함으로써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추구하는데 의미를 둔다.

디자인에 나타난 절제의 사례로 <사진 15>⁶⁰⁾는 소재 계열의 저지소재 원피스로 장식이 배제되어 꾸밈없는 순수함이 돋보인다. 특히 형태가 불분명한 천 조각을 바디(Bodice)에 감아 디테일의 변화를 주고자 했으나 마무리되지 않은 듯 하며, 바디에 감긴 천 조각 또한 착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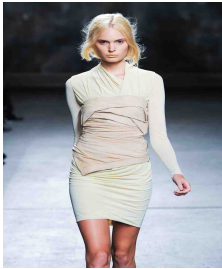
<사진 16>⁶¹⁾은 블랙의 제한된 칼라로 이루어진 전개형 코트로 웹 라인이 불규칙하고 여밈에 따라 형태가 자유롭게 변화되는 비정형의 실루엣이다. 이는 신체의 정확한 치수에 따른 구성과 확정적 실루엣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형태감을 보이며, 착용자에 따라 실루엣이 변화되는 인간중심의 디자인을 제시한다.

2) 무관심

디자인에 있어 무관심이란 비례적 합일을 바탕으로 서구세계가 규정한 균형·비례·대칭 등 절대적 정형미를 회피하는 것으로 완벽에 대한 틀을 깨는 자연의 무작위 사상과 연결된다. 즉, 그대로의 자연을 만끽하고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는 태도는 결정적 디자인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이는 미적 준거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을 통해 형식을 초월하고, 내적 본질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진 17>⁶²⁾은 베이지 계열의 H라인 원피스 한쪽 면에 테일러드 수트의 일부가 겹쳐진 형태처럼 보인다. 좌우 소재감을 달리해 밋밋한 원피스에 디테일의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인지 수트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디자인을 의도한 것인지 모호하다. 이는 인체의 사실적 표현에 대한 긴장감을 없애고 마치 디자인 원리에 관심을 두지 않은 듯한 신선함을 준다.

<사진 18>⁶³⁾은 무채색 계열의 그라데이션 배색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이 돋보인다. 부드러운 공단 소재로 자연스러운 주름이 연출되는 바지와 질감을 달리한 모소재의 하이 네크라인 재킷은 앞길의 좌우가



〈사진 15〉 Doo ri,
2011 S/S
- <http://www.style.com>



〈사진 16〉 Moon Young
Hee, 2010 F/W
- <http://www.style.com>



〈사진 17〉 Lie Sang Bong,
2011 S/S
- <http://www.style.com>



〈사진 18〉 Doo ri,
2005 F/W
- <http://www.style.com>

불균형·비대칭을 이룬다. 일반적인 재킷에서 볼 수 있는 정형화된 대칭감을 거부하고, 불규칙한 커팅을 적용해 시각적인 부조화를 유도하지만, 오히려 한결 가벼워보이도록 변화를 주었다.

2. 파격성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 온 한국인의 삶의 태도는 기교를 부리지 않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관조적 태도에서 나아가 대상을 더 거칠고 투박하게 만드는 빈곤미의 파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의 미의식에는 정해진 틀을 거부하고 난장을 추구하는 풍류와 원시종교가 존재했으며, 이는 질서가 있기 전인 혼돈의 상태이자 소박한 파격의 미라 할 수 있다. 형식의 파격은 서양의 물형식과도 통하지만, 동양에서의 물형식은 인위성을 배제하고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순환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디자인 원리의 파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표현에서 탈피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1) 무질서

디자인에 있어 무질서는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디자인 원리나 요소를 변형, 왜곡시킴으로써 기본 구성방식을 회피한다. 즉, 무질서는 기존의 모든 법칙과 구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스스로 틀을 거부하고 자연의 무질서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순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디자인에 나타난 무질서의 사례로 〈사진 19〉⁶⁴⁾는

원피스를 구성하는 패턴의 연결 방식에 질서가 결여되어 보인다. 특히 상의 쪽에 시스루 소재를 한 쪽 면만 연결하고, 스커트 부분에도 저지소재의 다른 옷감을 배치해 시각적인 무질서를 보인다. 랩 스타일로 연출한 스커트의 일부는 정확한 형태를 알기 어렵고, 헴 라인 또한 일정치 않아 불규칙한 형태를 보인다.

〈사진 20〉⁶⁵⁾은 인체에 자연스럽게 트레이핑 된 저지소재 드레스이다. 그러나, 마치 착장이 잘못되어 한 쪽 소매가 제 위치에서 이탈된 듯 패턴의 일부의 의도적으로 변형시켜 부자연스러움을 도모하였다.

2) 빈곤

디자인에 있어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부재함을 뜻하는 빈곤은 부를 상징하는 장식적 요소를 버리고 완전한 것을 자제함으로써 물형식의 불완전함을 추구한다. 즉, 질서와 무질서, 미추의 양면을 모두 포용하는 동양의 자연관은 절대미의 기준과 상반되어 보이는 빈곤적 특성을 미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즉, 오래되어 낡고 마모된 것에서 미적 흥취를 느끼고, 기본 구성요소의 생략·은폐·변질을 통해 무작위적 해체를 단행하는데, 이 또한 미적 표현을 다양하게 확대시키는⁶⁶⁾ 열린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사진 21〉⁶⁷⁾은 붉은색의 낡고 헤어진 냅마를 연상시킨다. 최상의 소재를 이용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일반적인 오프꾸뛰르 디자인과 달리 기본 구성요소를 과도하게 삭제·변질시켜 인체의 대부분이 노출됨으로써 기본적인 복식으로서의 기능성을 상실한 모습이다.



<사진 19> Moon Young Hee, 2006 F/W
- <http://www.style.com>



<사진 20> Lie Sang Bong, 2006 S/S
- <http://www.style.com>



<사진 21> Ji Haye, HC 2003 S/S
- <http://www.style.com>



<사진 22> Moon Young Hee, 2011 S/S
- <http://www.style.com>

빈곤의 또 다른 사례로 <사진 22>⁶⁸⁾는 속이 흰히 비치는 흰색 쉬폰 조각들이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다. 일정한 비율과 형태에 따른 재단법을 거부하고, 몸판 위에 무작위로 펼쳐놓은 모습은 틀에 박힌 획일적 구성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자유로운 발상으로 보이나 패턴의 형태가 일정치 않아 산만함을 주며, 오래 입어 헤어진 듯 한 표현으로 인해 빈곤함을 유발한다.

3. 해학성

익살과 풍자를 어우르는 해학(諧謔)은 즐거움과 애원이 병행되는 중립성을 보이며, 비애로부터 일탈을 꾀하는 낙천적 자세를 갖는다. 인위적인 기교를 부리기보다 왜곡과 과장을 통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해학은 구속과 속박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자유분방한 정신을 반영한다. 유교의 영향으로 감정의 절제가 요구되던 조선시대에 이러한 해학적 기질이 넘쳐난 것은 틀을 깨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려 했던 기층세력에 잠재된 무교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사실적 표현의 거부 및 서로 다른 질료의 병행은 의외성과 다채로운 감정의 발산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며, 무한한 개성 표출을 지향하는 패션디자인에서 창의적 표현을 위해 타 장르 및 타 예술영역과의 교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즉, 이질적 장르나 소재의 병치를 뜻하는 키치(Kitsch)·콜라주(Collage)·트롱프뢰유(Trompe l'oeil)를 통해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해방감을 맛보게 한다.

이는 이성 중심적 사고에 따른 엄격성과 감정의

절제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감정을 만끽함으로써 시각적인 즐거움과 쾌감을 유도하는데, 본고에서는 대조와 과장기법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희극미로 한정하였다.

1) 과장

과장이란 형태·색상·질료의 실험적 시도를 포함해 기본 구성을 무시하고 특정 부위를 비정상적으로 확대시킨 전위적 표현을 의미한다. 디자인에 나타난 과장의 사례로 <사진 23>⁶⁹⁾은 광택감이 도는 장방형의 패턴에 굵은 주름을 반복적으로 중첩시킨 원피스이다. 인체의 실루엣이나 활동성을 무시한 디자인으로 중심선을 따라 형성된 과장된 주름은 반복적인 리듬감으로 인해 강한 시각효과를 주지만, 인체와 대조되어 이질감을 극대화시킨다. 또한 전체적인 실루엣보다 하나의 장식으로서의 기능을 부각시킴으로써 주객이 전도된 듯한 부조화를 유발한다.

<사진 24>⁷⁰⁾는 축구공을 연상시키는 드레스를 연출한 모습이다. 2002 한일 월드컵을 기념하여 제작한 이 드레스는 축구공의 다이아몬드 모티브와 구형의 부피감을 부분적으로 확대시켜 재미를 더한다. 즉, 머메이드 실루엣에 공의 형태를 비대칭적으로 배치, 독특한 실루엣을 만듦으로써 드레스로서의 정교함을 거부하고, 웃음을 유도한다.

2) 대조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맞대어 봄을 뜻하는 것



〈사진 23〉 Lie Sang Bong,
2010 S/S
- <http://www.style.com>



〈사진 24〉 Ji Haye, HC
2002 P/E
- <http://www.style.com>



〈사진 25〉 Lie Sang Bong,
2005 S/S
- <http://www.style.com>



〈사진 26〉 Moon Young
Hee, 2010 F/W
- <http://www.style.com>

으로 예술 작품의 여러 요소 중 조화나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쌍방의 차별적 특성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에 있어 대조 기법을 통해 옷을 유발하는 해학은 디자인 요소의 선택에 있어 일반적 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함으로써 긴장의 소멸과 웃음을 경험하게 된다.

〈사진 25〉⁷¹⁾는 일반적인 셔츠 소재의 상의를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킨 모습이다. 베스트 또는 홀터넥 스타일 같기도 한 애매모호한 실루엣으로 암홀 부위가 상당부분 잘려나가 부풀려진 하단부위와 대조를 보이는데, 상체의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베스트나 홀터넥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 듯하다.

〈사진 26〉⁷²⁾에서는 트위드 소재 재킷과 스커트의 콤비를 보여준다. 서로 다른 소재를 연결시킨 고어(Gore) 스커트와 단색의 재킷위에 형태감이 모호한 천 조각을 고정시킨 모습이다. 실루엣이 정확하지 않아 용도를 알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매끈한 A라인 실루엣 위에 이질감이 느껴지는 소재를 더함으로써 시각적인 연결감과 조화로움을 방해한다.

4. 일원성

동양은 자연의 모든 대상과 사물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와 공존을 이루는 통합적 사고가 바탕을 이루어 왔다. 모든 현상의 근원이 하나에서 비롯됨을 뜻하는 일원은 대상의 본질을 철저히 분석·구분해 온 서양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즉, 일원은 우주의 만물이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천인합일·유무불

이 사상이 바탕을 이루며, 모든 이항대립-주객, 진위, 미추, 형식·내용, 가치·무가치-을 초월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또한 무질서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자연의 미분리사상은 상생과 상극에 따른 순환성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서양의 이원적 논리성을 초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분리 사상은 현존하는 공간의 무한(無限)으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초(超)공간에 대한 동서의 시각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서양에서의 무한(無限)의 개념이 유무의 분리에서 출발해 유(有)의 확장 개념으로서 무(無)에 접근하는 것과 달리 동양에서의 무한은 유한(有限)을 감싸 안은 형태로 현 공간 안에 무와 유가 공존함을 주장한다.⁷³⁾ 불가사상의 불이(不二)와 도가 사상에서도 상반되어 보이는 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이원적 사고 자체를 초월한다는 의미이다.⁷⁴⁾ 따라서, 일원성은 이항대립을 비롯해 기존의 전통적 가치체계에서 타자로 여겨져 온 하위개념들이 중심 개념과 혼합되는 탈중심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여성, 동양, 감성과 같은 음(陰)적 개념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음양의 조화 및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를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폐선에 나타난 일원성을 성·민족·계층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 성

인간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남녀의 이원론적 구분을 뛰어 넘는 불이성은 성의 구분을 초월해 인간



<사진 27> Ji Haye, HC
2002 PE
- <http://www.style.com>



<사진 28> Lie Sang Bong,
2010 F/W
- <http://www.style.com>



<사진 29> Moon Young
Hee, 2008 S/S
- <http://www.style.com>



<사진 30> Lie Sang Bong,
2009 F/W
- <http://www.style.com>



<사진 31> Ji Haye, HC
2002 PE
- <http://www.style.com>



<사진 32> Moon Young
Hee, 2008 F/W
- <http://www.style.com>

의 본성 추구 및 인간사회의 조화에 집중한다. 젠젠 (V.zenden)은 남녀 성의 공존을 의미하는 양성성 (Androgyny)을 성의 고정관념에 관계없이 인간의 감정과 역할 가능성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한다.⁷⁵⁾ 디자인에 나타난 성에 따른 일원성은 남녀 성이 복합되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양상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즉, 인체의 실루엣을 드러내지 않은 디자인이나 남녀 복식의 전통적 특성들이 혼재되어 성의 구분이 불가능한 디자인이 성적 측면에서 일원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진 27>⁷⁶⁾은 남성들이 수트 안에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와이셔츠를 여성의 드레스로 변형시킨 모습이다. 네크라인을 길게 파 가슴선을 노출시키고 셔츠의 카라 부분은 wing 카라의 형태로 확대시켰다. 일반적인 남성 셔츠형태를 길게 연장시켜 여성을 위한 텐트라인의 시크한 드레스로 재해석한 모습이다.

<사진 28>⁷⁷⁾은 과거 남성성을 대표하던 아이템인

과워솔더 재킷과 점프 수트를 결합시켜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여성성이 느껴지는 부드럽고 광택나는 새틴 소재에 여성의 관능미를 대표하는 가는 허리가 노출되어 넓은 어깨선과 대조를 이루므로써 오히려 여성스러움이 극대화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 준다.

2) 민족

민족적 측면에 있어 일원성은 동서 구분 짓기를 초월해 동서양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민족이 지구촌의 구성원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서양 중심의 사고에서 타자로 여겨져 온 동양과 서구 문명의 영향 밖에 있던 미지의 제 3국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국적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다국적 이미지로 표현된다. 즉, 동서의 구분을 초월해 공존과 융화를 모색하는 일원성은 다민족·다문화 요소의 수용 및 동서 문화의 절충을 통해 전체적인 조화

와 새로운 관계성을 확대시켜나가는 상생의 철학을 제시한다.

〈사진 29〉⁷⁸⁾에서는 한국의 전통 복식인 치마를 현대 드레스 패턴과 절충한 모습이다. 장방형의 천에 주름을 넣고 치마허리를 달아 몸에 둘러 입는 전통 방식에서 인체의 치수를 고려한 피티드(Fitted) 라인의 원피스로 변화되었다. 특히 가슴에 둘러 입던 치마허리가 See through의 상의로 탈바꿈 되어 관능미를 부각시키고, 발목 길이의 스커트는 주름이 다이나믹하게 가미되어 소녀취향의 미니스커트로 변형된 모습이다.

〈사진 30〉⁷⁹⁾은 호랑이 가죽 무늬가 선명한 바디수트 위에 핫 핑크의 코트를 착용한 것으로 코트의 가슴 부위 일부가 잘려져 나가 안쪽의 호피 소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가죽 무늬는 서구화된 문명의 혜택과는 거리가 있는 때 묻지 않은 자연의 순수함을 연상시키며, 패션에서는 원시 밀림의 요소를 차용한 프리미티브(Primitive) 이미지로 간주된다.

3) 계층

계층이나 빈부의 전복현상은 패션디자인에서 빈번하게 목격되는데, 서양이 이항 대립의 극복과 차별화된 이미지 실현을 위해 하위 문화적 요소를 차용하는 것과 달리 동양은 주객·미추(美醜)의 분별을 거부하고, 모두가 자연의 일부라는 일원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양면 가치를 수용한다. 나아가 음적 속성을 지닌 개념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들을 우위에 둬으로써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음을 볼 때 계층의 측면에서는 하위 문화적 요소를 조화롭게 수용한 디자인에서 일원적 접근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31〉⁸⁰⁾에서는 부분적으로 부피감을 살려 좌우 비대칭의 자유로운 형태감이 돋보이는 드레스를 연출하였다. 특히 워싱턴 진 소재는 노동계층이 주로 착용했던 하위 문화적 코드로 고급스러운 드레스의 소재로는 적절치 않다고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샤넬을 비롯한 오프꾸뛰르 무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범계층적으로 사용되면서

상하 수직구조의 구분을 초월한 모습이다.

〈사진 32〉⁸¹⁾는 튜닉 형태의 카키색 상의로 오래 입어 닳고 색이 바랜 듯한 빈티지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1960-70년대 히피룩이 재해석된 뉴히피룩으로 소재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듯한 자연스러움과 그런지(Grunge)풍의 패치워크, 부분적으로 울을 풀어 히피들이 갈망했던 과거와 자연의 향수를 반영한 듯하다.

IV. 현대패션에 나타난 자유분방성의 미적 가치

이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자유분방성의 무작위성, 파격성, 해학성, 일원성은 형식과 기교의 초월, 상대성 인정, 이항대립의 공존 등 초월미, 관계미, 다원미의 추구로 이어진다.

1. 초월미(楚越美)

자유분방성의 초월미란 패션에 있어 획일화된 미적 기준과 질서에 따른 전형적인 구성법을 벗어나 불완전함과 비정형미를 비롯해 상반된 대립 개념을 수용하는 등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의 전환을 의미한다. 먼저 패션의 무작위성은 구성 및 배열에 있어 정형화된 형식·기교에 매이지 않으므로써 절제·무관심의 관조적 자세로 이어지는데, 이는 외적 형식을 초월해 내적 정신에 집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파격성은 정형화된 실루엣이나 미추의 구분을 거부하고 인체의 대칭·균형·조화에서 어긋난 다양한 무형태를 수용함으로써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도모한다. 해학성은 미적 질서의 배후에 있는 이성·합리적 기준을 초월해 특정 부위의 확대, 엉뚱한 배색, 이질소재 혼용 등 일상성의 위반을 통해 재미와 의외성을 제공한다. 일원성은 패션에 있어 상하 위계질서에 따라 성·민족·계층을 구분짓기보다 공존을 통해 본질에 집중하고, 통합적 가치를 실현한다.

2. 관계미(關係美)

자유분방성의 관계미는 상생관계를 바탕으로 처음

부터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공존재(Co-being)의 통합 개념에서 비롯된다. 무작위성은 인체·의복·공간 사이의 기의 순환과 디자인 요소 간의 상대적 관계를 배려해 가득 채우지 않고 비워둠으로써 여유로운 실루엣이나 최소주의의 패션으로 표현된다. 과격성은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로 인해 스스로 투박해지는 것으로 헤롤드 코다(Herold Coda)가 추의 개념으로 언급했던 불규칙·불균형·부조화·미완성된 디자인으로 표현된다. 해학성은 디자인에 있어 예측 가능한 기준과 일상적인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정신적인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일원성은 우주의 만물이 자연에서 비롯되었다는 천인합일을 바탕으로 패션의 성·민족·계층에 있어 상하 서열구도가 아닌 상호의존적 상생관계를 통해 다양한 패션 이미지를 실현시킨다. 이는 서구사회가 이분법적 관계와 이로 인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온 타자성 인식 및 관계성의 확장과는 다른 차원으로 자연 속에 미추, 질서와 무질서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은 수평적 관계의 확대를 의미한다.

3. 다원미(多元美)

자유분방성의 다원미는 조화로운 전체성을 위해 양적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여겨졌던 음적 개념에 가치를 둬으로써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인다. 무작위성은 디자인 구성에 있

어 형식의 절제와 완성의 회피 등 조형의지를 거부함으로써 미의 절대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비대칭·불균형·부조화의 불확정적 디자인을 수용한다. 과격성은 그 크기와 위력에 있어 혼돈과 무질서, 황폐함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는 자연 속의 무형태를 수용함으로써 무한한 조형미로 이어진다. 해학성은 패션에 있어 과장과 대조 및 상반 개념의 동시성을 통해 자유로운 감성을 발산하며, 구성·착장·배열의 상호관계성을 무시한 확대·전위를 통해 다양성을 추구한다. 일원성은 패션에 있어 음적 개념을 부각시켜 남녀 성 구분이 모호한 디자인, 서구 열강을 제외한 동양 및 제 3세계의 지역적 요소를 반영한 디자인, 하위 문화적·비주류적 특성이 공존하는 디자인 및 서로 관련없는 개념들의 혼성모방 등 표현의 장(場)을 넓힘으로써 전체성의 추구하고 열린 사고로 이어진다. 단, 의도적인 절충 작업과 달리 동양적 시각에서는 예로부터 구분 짓기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는 다양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상 패션에 나타난 자유분방성의 미적 가치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해체적·절충적·다원적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동양의 사상체계와 예술 전반에 나타난 미의식을 살펴 자유분방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한국 패션문화현상을 분

<표 5> 현대패션에 나타난 자유분방성의 미적 가치

디자인 구분	자유분방성	미적 가치
무작위성	형식·기교·완성 초월, 미추구분 초월, 내적 정신성 지향	초월미
과격성	형식·질서 거부, 비정형성 추구, 무한한 형태미 추구, 자연으로 회귀	
해학성	합리적 기준·일상적 규칙 위반, 재미·의외성 제공	
일원성	미분리 사상, 이항대립 공존·모색, 통합적 가치 실현	관계미
무작위성	기의 순환 & 여백, 상대적 관계 배려	
과격성	자연 순응적 태도, 자연으로의 회귀, 스스로 투박해짐	
해학성	이성과 감성의 불균형, 정신적 긴장감 완화	다원미
일원성	천인합일, 상호의존적 상생관계, 수평적 관계 확장	
무작위성	형식 및 완성의 회피, 조형의지 거부, 무 형태 지향, 불확정적 디자인	
과격성	자연의 무형태 수용, 무한한 조형미	
해학성	상방 개념의 동시성, 자유로운 감성 및 다양성 추구	
일원성	음적 개념 부각, 구분 짓기 거부, 상대적 가치 인정, 전체성 추구	

석하는 개념으로 적용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양 유·불·도·무교의 종교관과 풍류의 생활관에 내재된 사상체계에는 공통적으로 자연 순응적 종교관과 자연합일·불아일체의 미분리 의식이 깔려있으며, 이에 따른 무위자연·술이불작의 덕목을 실천해왔다. 또한 정신사상 체계인 천인합일, 무(無)세계관, 상대적 공간성, 상생관계를 통해 모든 대상이 우주 내의 공존체로서 상호교류·협력하는 관계론적 사유를 실천해왔다.

둘째, 자유분방성의 유형 분류를 위해 정신관과 생활관 및 예술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한 결과 무작위성, 파격성, 해학성, 일원성이 도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무작위성과 파격성 및 해학성은 형식의 초월과 무질서의 수용 및 일상성의 위반이라는 외적 표현 형식을 보인 반면, 일원성은 음적 개념의 수용을 통해 통합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적 의미 형식을 뜻한다.

셋째,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자유분방성을 살펴본 결과 절제·무관심의 무작위성, 무질서·빈곤을 통한 파격성, 대조·과장을 통해 긴장을 소멸시키는 해학성, 성·민족·계층의 분리를 초월하는 일원성을 갖는다. 즉,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자유분방성은 형식의 절제와 완성에 대한 무관심 및 무기교,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 실현, 음적 요소의 부각 등 외적 형식보다 내적 본질에 집중하고, 중심과 주변의 원용을 통해 다양한 무형태를 수용함으로써 상대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넷째, 패션디자인의 자유분방성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살펴본 결과 초월미, 관계미, 다원미를 도출하였다. 초월미는 미추 구분 탈피 및 형식의 절제에 따른 무형태 수용, 상생관계에 따른 경계 초월, 일상 규칙의 위반에 따른 의외성 추구 등 형식을 초월해 정신적 깊이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관계미는 대립을 포함한 우주 안의 모든 관계를 대대관계로 보고, 조화로우며 추구한 상생개념을 의미한다. 즉, 상대적 배려를 위한 여백, 자연순응적 태도, 이성과 감성의 조율, 타자성 인정 등 상대성을 지향하는데, 대립·구분을 초월해 처음부터 중심과 주변이 구분되지 않은 모호성을 보인다. 다원미는 획일적 조형의지

거부, 자연의 무형태 수용, 상반 개념 공존, 음적 개념 부각 등 무한한 조형미를 추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분방성은 해체주의·포스트모더니즘적 현상이 지향하는 다양한 외형미, 상대개념 수용, 관계성 확장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체적·다원적 패션디자인을 분석하는 틀로써 가치를 지니며, 동서양 시각 차이에 따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디자이너들이 증가하고, 이들 작품에 해체적·질충적 성향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1세기는 무한한 창조지를 위한 원천으로서 보다 다양한 사고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한국의 예술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미의식의 발견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최준식 (2000),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서울: 효형출판, p. 23.
- 2) *Ibid.*, pp. 35-36.
- 3) 유동식 (1997),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 112.
- 4) Thomas Munro (1984), *Oriental aesthetics*, 백기순 역 (2002), *동양미학*, 서울: 열화당, pp. 81-82.
- 5) 유동식, *op. cit.*, p. 83.
- 6) 한국국민윤리학회 (1993), *한국사상과 윤리*, 서울: 형설출판사, pp. 169-170.
- 7) 노승현 (1997), *동서인간론의 충돌*, 서울: 백의, p. 129.
- 8) 김영호 (1998), 동양미학의 입장에서 바라본 영화,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14.
- 9) 조민환 (2003), 태극음양설과 한국전통예술의 미의식, *美學·藝術學 研究*, 17, p. 94.
- 10) 이동철, 최진석, 신정근 (2005), *21세기의 동양철학*, 서울: 을유문화사, pp. 95-96.
- 11) 이종선 (2004), 장자미학의 포스트모던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9-20.
- 12) 한국국민윤리학회, *op. cit.*, pp. 221-222.
- 13) 김영호, *op. cit.*, p. 16.
- 14) 신은경 (2000), *風流-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서울: 보고사, pp. 64-67.
- 15) 박경일 (2002), 동과 서의 발라드, *동서비교문화저널*, 6, pp. 68-70.
- 16) 이윤경 (2009), 복식에 표현된 초공간 패러다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58.
- 17) 정진배 (2008), *탈 현대와 동양적 사유논리*, 서울: 차이나하우스, p. 181.
- 18) 홍승희 (2001),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상대주의 공간개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6.

- 19) 유현준 (2008), *모더니즘-동서양 문화의 하이브리드*, 서울: 미세움, p. 38.
- 20) 이진민, 김민자 (2006), 동양 미학적 관점에 의한 한. 일 여성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 고찰, *복식*, 56(5), pp. 132-149.
- 21) 김은균 (2005), 탈춤에 나타난 음양오행 사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3-14.
- 22) 정진배, *op. cit.*, p. 48.
- 23) 이순만 (1997), 동양의 자연사상과 한국의 전통색채 연구, *디자인 논문집*, 2, p. 9.
- 24) 신은경, *op. cit.*, p. 17.
- 25) 안휘준, 정양모 (2007), *한국어 미, 최고의 예술품을 찾아서*, 경기: 돌베개, p. 134.
- 26) 이효진 (2001), 1990년대 이후 한국 서양복식에 표현된 자유분방함의 미, *패션비즈니스*, 5(1), p. 37.
- 27) 자료검색일 2010. 1. 18, <http://blog.daum.net/casahp/53?srchid=IIM0skfj300#A121A354F4F44B1142E1E7>
- 28) 유명걸 (2000), 서양의 미학이론과 한국 미학 이론의 단초, *뽕한철학*, 21, p. 299.
- 29) 정동주 (2001), *조선막사발 천년의 비밀*, 서울: 한길아트, p. 13.
- 30) 윤용이, 유홍준, 이태호 (1997), *조선후기 장승의 미술사적 규명-한국 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서울: 학교재, p. 77.
- 31) 심영옥 (2006), *한국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의미*, 서울: 진실한 사람들, p. 24.
- 32) 변영희, 채금석 (2009), 21세기 뷰티디자인의 미학적 접근, *한국의류학회지*, 33(8), p. 148.
- 33) 자료검색일 2009. 11. 29, <http://imgv.search.daum.net/viewer/search?w=imgviewer&SearchType=tab&ResultType=tab&q=%B1%C3%C1%DF%B9%AB%BF%EB&SortType=tab&sidx=30>
- 34) 자료검색일 2009. 5. 29, <http://cafe.daum.net/ulsanworlddance/3vrl/1?docid>
- 35) 김지영 (2009), 시나위적 안무법이 적용된 창무춤의 창작성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59.
- 36) 정은혜 (2002), 한국 춤의 미학적 특성과 형성요인에 대한 분석, *무용학회논문집*, 33, pp. 155-175.
- 37)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62779>
- 38) 황경숙, 이주연 (2004), 살풀이춤의 무용미학적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15(5), pp. 511-524.
- 39) 박전열 (2001), *봉산탈춤*, 화산문화, p. 123.
- 40) Leonard C. Pronko (1967), *Theatre East and West*, 서연호 역 (2004), *동아시아 공연예술*, 서울: 살림출판사, pp. 60-61.
- 41) 변영희, 채금석, *op. cit.*, p. 149.
- 42) Leonard C. Pronko, *op. cit.*, p. 6.
- 43) 조민환, *op. cit.*, pp. 93-112.
- 44) 자료검색일 2010. 3. 15, <http://blog.naver.com/chfhsldpdu?Redirect=Log&logNo=140044689261>
- 45) 자료검색일 2010. 7. 2, <http://www.koreanfolk.co.kr/folk/house/intro.asp>
- 46) 자료검색일 2010. 6. 13, http://www.imagekorea.co.kr/script/search/view__detail.php?ProductNo=7038143
- 47) 권영필 외 (2005),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 경기: 돌베개, pp. 56-59.
- 48) Thomas Munro, *op. cit.*, pp. 63-64.
- 49) 자료검색일 2009. 10. 28, <http://museum.sookmyung.ac.kr/sub03/06.asp>
- 50) 심영옥, *op. cit.*, p. 101.
- 51) 김미영 (1998), See-Through 양식을 응용한 현대 한국 의상 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8-41.
- 52) 자료검색일 2010. 4. 15, http://www.gogung.go.kr/gallery.do?cmd=galleryAroundForm&menu=19&view__menu=13
- 53) 김지연 (1999), 한국 전통미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3.
- 54) 금기숙 (1995),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 73.
- 55) 두산동아사서편집국 (2005), *새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p. 1906.
- 56) 최준식 (2002), *한국인은 왜 틀을 거부하는가*, 서울: 소나무, p. 92.
- 57) 권영필 (1985), *한국 미술의 미적 본질*, 서울: 서울신문사, p. 63.
- 58) 최준식, *op. cit.*, p. 44.
- 59) 이진민, 김민자, *op. cit.*, p. 140.
- 60)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61)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62)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63)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64)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65)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66) 변영희, 채금석, *op. cit.*, p. 153.
- 67)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68)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69)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70)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71)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72)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73) 이윤경, *op. cit.*, pp. 1-2.
- 74) 서봉하, 김민자 (2007), 불이사상에 영향을 받은 전통복식의 조형미, *복식*, 57(3), pp. 167-169.
- 75) 정세희 (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춤춤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3.
- 76)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77)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78)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79)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80)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
- 81) 자료검색일 2009. 7. 15, <http://www.style.com>